

즉시 배포

케랄라 주 8학년 슈레야 조이(Shreya Zoy) 학생,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 대상 수상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인도 케랄라 출신의 13세 소녀 슈레야 조이는 평화가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감동적인 수필로 표현하여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의 더글라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때때로 젊은이들의 훌륭한 견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우리가 하나이며 경청의 시간을 갖는다면 평화와 국제적 이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슈레야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의 놀라운 목소리를 한층 높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국제 수필 경연 대회는 전 세계 라이온스 클럽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라이온들은 지역의 학교와 가정의 도움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파악한다.

슈레야 양은 “저는 시각 장애가 있지만 자라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불편함보다는 점점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이며 독창성, 구성력,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표현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슈레야 양은 Mannuthy Agri City 라이온스 클럽에서 후원한 지역 경연 대회를 통해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평화에 대한 본인의 글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Mannuthy Agri City 라이온스 클럽의 P V Surendranadh 회장은 “국가 간의 교류가 나날이 좁아지고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소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평화 수필 경연 대회가 전하는 신념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며, 슈레야 양과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역사적인 성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영감을 선사하고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자 품은 세계관에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라고 말했다.

슈레야 양은 자신의 수필을 통해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전한다. 비록 다른 민족 출신일 수 있고 다른 문화를 따르거나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을 느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슈레야 양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심각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고 서로 돕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슈레야 양은 코로나 19 대유행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슈레야 양은 "인간이 집단으로만 생존할 수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도록 하기 때문에 평화 수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의지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은 우리에게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라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로서 슈레야 양은 상과 상금 5,000 달러,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된다. 슈레야 조이 양의 수상작 및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회 웹사이트(lionsclubs.org/ko/peace-ess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다. 라이온스는 평화 수필 경연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평화 및 국제이해 증진에 대한 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 평화 수필 경연 대회 수상작 - 슈레야 조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을 때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인간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수두하바 쿠툼바캄(Vasudhaiva Kutumbikam)' 즉, '세계는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전 세계가 행복, 평화, 안보, 식량 및 주거지와 같은 자원, 희망찬 미래 등 동일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문화에 속해 있는지가 아닙니다. 다른 길이나 종교를 따를 수 있지만 이것들은 바뀔 수 있고 영혼은 그러한 모든 일시적인 명칭을 초월합니다. 또한 영혼의 본질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깊은 사랑의 관계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관계는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인 신에게 영적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적 길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민족, 성별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적 행동을 불러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신의 한 부분임을 존중함으로써 본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이 행성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두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인류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수천 번의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난 후입니다. 전쟁, 환경오염, 자연재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화합이 유지되면 모든 일은 지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파괴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인과도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19 를 통해 얻은 더 중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성에 대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조치를 따르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씻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지킨다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학교 수업을 재개할 수 없고 직장을 정상화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료 체계는 과부하가 지속되고 사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코로나 19 의 또 다른 교훈은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되고 사려 깊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통합은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보다 공공복지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와 앞으로 발생할 팬데믹에 대한 통합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이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동지에 사는 새와 같습니다. 다른 인종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특정 종교를 믿으며 다른 문화에 속해 있지만 지구라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행성에서 태어나 같은 하늘에 떠있는 같은 별을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